

農家의 資金運用과 負債*

徐 鍾 赫

首席研究員, Ph. D. (農業經濟學), 所得開發室

朴 成 在

研究員, 所得開發室

- I. 序 論
- II. 農家의 資金運用과 負債
- III. 農家의 現金收支와 負債의 短期支給能力
- IV. 要約 및 結論

I. 序 論

農業生産의 主體인 農家의 經濟的인 位置가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70년대 중반에 일시적으로 보였던 都農間의 所得均衡이 8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커다란 격차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으며, 農家經濟 內部에서는 收支의 不均衡이 심화되어 負債의 累增으로 나타나고 있다.

農水産部の 발표에 의하면 1985년말 현재 전국 농가 호당 평균 부채액은 202만 4천원으로 同年度中 農家戶當 平均所得 573만 6천원의 약 35%를 점하고 있다. 이는 1980년말 농가 호당

평균 부채액 33만 9천원의 약 6.1배에 달하는 금액이며 1984년말 호당 평균 부채액 178만 4천원에 비하여 13.5%(24만원)가 늘어난 규모이다(농수산부 1986).

農家負債가 최근에 와서 크게 社會問題化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農家負債의 增加率이 여타의 農家經濟指標들(예, 農家所得, 資産 等)의 增加率에 비하여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1980~85년 사이에 농가소득 및 자산은 연평균 약 16%씩 증가한 반면 부채는 약 43%씩 증가하였다. 둘째, 농가 호당 부채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농가소득만으로는 부채의 상황이 어려운 농가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즉, 農家의 負債에 대한 短期支給能力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어 전체농가의 약 1/3에 해당되는 농가가 당면한 부채(流動負債)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徐鍾赫, 朴成在 1986).

그동안 농가의 부채상환능력에 대해서 여러

* 本稿는 筆者의 研究報告書「農家資産 및 借入構造의 變化에 관한 研究」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5의 內容一部를 보완하여 정리한 것임.

각도에서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¹ 그 가운데는 農家の 財務構造指標를 이용한 靜態分析과 농가소득이나 농가경제인여를 부채규모와 비교한 動態的 性格의 간단한 지표를 이용한 것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평균농가 수준에서의 부채상환능력을 그것도 농가부채의 총규모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農家間的 차이를 나타내주지 못함으로써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서중혁의(1986)의 분석은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농가의 재무구조지표에 의한 정태분석²을 농가별로 시도함으로써 상당수의 농가가 短期償還能力에 문제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의 분석도 역시 일정 시점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농가경제의 동태적인 변동을 고려하지 못하고, 문제의 한 측면만을 드러내 보였다는 약점을 피할 수 없었다. 즉 靜態分析은 어느 한 時點에서 본 부채란 점이 농가의 재무구조에 비추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라는 가능성에 대한 진단일 뿐이며, 실제로 그러한 점이 농가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문제는 어떠한가를 현실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채문제를 좀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動態分析이 보완되어야 하며 이 두 결과를 結合한 綜合分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정 시점에서 파악된 농가부채는 장기에 걸친 농가의 소득, 가계소비 및 투자와 같은 諸經濟活動의 결과로 나타나는 資金收支上의 綜合指標이다. 當期末부채는 當會計期間에 일어난 자

금수지의 결과로 발생된 純負債(年度中 純借入金)의 增減分을 前期末 負債에 더한 것이다. 일정 會計期間中の 자금수지, 즉 들어오는 자금과 나가는 자금의 차이는 소득과 소비 그리고 투자에 의해서 결정되며 투자는 固定資產의 純投資, 在庫資產의 增加, 金融資產(現金 및 準現金)의 純增規模로 나타난다.

따라서 농가부채의 상환능력이나 累增現象을 동태적으로 깊이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諸經濟活動과 관련한 농가의 자금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농가가 생산활동에서 얻는 소득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으며, 投資財源은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밝힘으로써 靜態分析의 弱點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本稿는 農家들의 資金運用의 側面에서 부채의 상환능력은 어떠한가 또한 부채의 상환능력의 차이에 따라 그들의 資產(資本 및 金融計定資產) 運營은 어떠한가를 農家の 資金運用 分析을 통하여 규명코자 한다. 分析에는 주로 농가의 횡단자료(충남자료의 1984년도 농가경제조사 대상 농가 241호)가 이용되었다.

본논문의 구성은 제 2장에서 농가의 자금운용에 대한 이론적검토를, 제 3장에서는 실증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농가의 現金收支와 그에 따른 자산운영의 차이 그리고 부채의 상환능력을 分析하고 마지막으로 제 4장에서는 앞에서 이루어진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농가의 자금운영과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종합평가와 이에 따른 정책 方向의 導出을 시도하는 것으로 하였다.

¹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서중혁, 박성재(1985 1986), 農協中央會(1984), 기독교농민회(1984) 및 이우재(1984)의 연구가 있다.

² 本稿에서 적용한 靜態(static) 및 動態(dynamic)란 用語는 엄밀한 것이 아니고 貯量(stock)과 流量(flow)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지칭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용어를 사용한 것은 일반적으로 경영학적 개념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Ⅱ. 農家の 資金運用과 負債

농가부채의 발생은 농가의 資金運用結果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농가가 운용하는 총자금량에 비해서 자기자금량이 부족한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가부채문제의 이해는 農家經濟 内部의 자금흐름을 살펴봄으로써 깊이를 더할 수 있다. 자금흐름을 파악하는 유용한 분석 도구로는 資金運用表가 있다. 이는 자금흐름을 源泉(경상잉여, 고정자산매각, 부채순증)과 運用(고정자산구입, 금융자산순증)으로 구분하여 자금경로를 보여주는데, 이것을 농가부채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용할 경우 負債의 純增加額의 파악은 물론 부채증가의 요인이 농가의 經常部門(소득 및 가계소비)의 적자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投資部門(고정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증가)에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농가의 일차적인 자금조달원인 경상부문의 수지상태가 농가의 資産運用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농가의 資金運用分析은 企業에서와는 달리 좀더 복잡한 검토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생산과 소비가 未分離된 농가경제의 특성에 기인한다. 기업에서는 이윤극대화 또는 費用最少化라는 단일 목표를 중심으로 자금이 운용되지만 농가에서는 여기에 가계의 생활유지 또는 효용극대화의 원리에 지배받는 소비부문이 더해지게 되나, 이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자금운용의 과정을 밝히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本分析의 초점에서 벗어난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분석에서

는 생산과 소비부문을 한데 묶은 經常部門과 農業資本의 형성을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용이라는 측면에서의 資本部門, 이 두 부문을 연계시키고 원활한 자금흐름을 뒷받침할 농가보유 現金 및 準現金과 자금의 借入과 償還을 묶은 金融部門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그런데 농가의 자금운용분석에서 또 하나 유의할 점은 농가의 자금을 現物과 現金을 합친 總額概念으로 파악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농가경제는 自家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소비하는 생산과 소비의 混合經濟라는 사실이나 去來用으로 현물이 이용되는 사례가 없지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물의 평가치와 현금을 합친 총액개념으로 자금운용을 보는 것이 농가의 제반 경제활동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적절하다. 그러나 본분석에서 추구하는 부채의 발생이나 변동을 농가의 자금흐름과 관련지어 파악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보이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농가경제는 이미 상당부문이 貨幣經濟化되어 있으며, 농가의 자금부족에서 오는 자금차입이란 현상은 거의 대부분이 거래의 결재수단인 現金不足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³ 또한 現物은 보유기간에 일어나는 가격변동이나 質의 저하, 농가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른 오차 등으로 농가의 자금운용을 설명하는 데는 상당한 편차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 會期라는 短期에 있어서의 자금흐름과 부채문제의 분석은 현금흐름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본분석은 이와같은 입장에서 현금흐름을

³ 현실적으로 농가의 재산운용에 관련된 投資와 資金의 借入 및 尙환에 있어서의 거래는 97%가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 보고」 1985, 제산적 수지란 참조).

중심으로 한 資金運用分析을 시도하였다.

다음 <그림 1>은 이러한 시각에서 농가의 자금흐름경로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경상부문의 자금조달원은 농업수입과 농외수입이 되며, 운용부문은 이러한 수입을 얻기 위한 지출(농업경영비, 경업 및 농외지출, 차입

그림 1 農家の現金흐름表

	調 達	運 用
1. 經常計定	農業粗收入 農外粗收入	農業經營費 農外支出 家計費 租稅公課金 分家支出 經常剩餘
2. 資本計定	純貯蓄 固定資産賣却	固定資産購入 資金過不足
3. 金融計定	資金剩餘 金融資産引出 資金借入	金融資産購入 借入金償還
4. 綜合計定	純貯蓄 借入純増	固定資産投資純増 金融資産純増

금이자)과 생활을 위한 소비지출 조세공과 등이 다. 그리고 여기서 남는 財源(經常剩餘: 農家經濟剩餘)이 資本部門의 調達源이 되며, 자본부문은 이외에 고정자산의 매각수입을 합쳐 고정자산 투자를 하게 된다. 이때에 조달자금과 운용자금의 差額이 資金過不足으로서 금융부문에 연결되어 부채의 순증가액과 합친 자금원이 되며 운용은 금융자산의 순증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綜合計定은 위의 3개 부문을 모두 더할 경우 각부문의 純資金調達과 運用만 남게

되어 전체적인 자금흐름을 간단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⁴

이와같은 현금흐름표는 부채발생의 원인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며 부채의 상환능력을 일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준다. 즉 경상부문의 운용자금이 조달자금보다 커서 적자를 보았을 경우 기존부채의 상황은 새로운 부채의 증가나 자산매각이라는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경상부문의 흑자가 있더라도 상환해야 할 부채가 이 잉여보다도 크면 결과는 같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부채의 상환능력을 농가가 정상적인 生活水準을 유지하면서, 상환시기가 도래한 부채를 무리없이 갚아가고 있는가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반대로 농가가 경제활동에서 얻는 수입 가운데서 과연 얼마만큼이나 실질적인 농가내부의 축적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本稿에서는 이같은 시각에서 現金收支의 개념을 새로이 설정하고 그 정도에 따른 농가의 구분방법을 통하여 農家間의 부채상환능력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이를 다시 流動性 또는 當座比率과 같은 靜態指標과 결합시킴으로써 농가부채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하였다.

먼저 本分析에 적용된 經常現金收支와 現金收支의 도출과정은 다음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⁴ 이상에서 언급한 농가내부의 자금흐름은 반드시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경상부문의 잉여가 농업자본투자가 없을 경우는 금융자산의 순증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며, 자본부문에서 자금부족이 발생했을 경우 借入資金의 純増만으로 그칠 수 있다. 이와같은 농가내부의 자금수지의 균형은 농가의 各資産에 대한 選好度의 차이나 消費貯蓄性向의 차이, 利率率, 농업부문의 資本投資收益率의 변동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림 2 農家の 現金收支 計算

$$\begin{aligned} & \text{現金農業租收入} - \text{現金農業經營費} = \text{現金農業所得} \\ & \text{現金農業所得} + \text{現金農外所得} = \text{現金農家所得} \\ & \text{現金農家所得} - \text{現金家計支出} = \text{經常現金收支} \\ & \text{經常現金收支} - \text{支拂長短期負債償還元金} = \text{現金收支} \end{aligned}$$

경상현금수지 : 경상현금수지는 현금흐름표상의 경상부문의 수지를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경상부문의 현금수입(농업+농외조수입)에서 현금지출(농업경영비+가계비+조세공과금+분가지출비용)을 除한 나머지 금액이다. 경상현금수지의 흑자의 규모는 농가가 부채의 상환,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또는 금융부문의 투자(예저금 등)등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수준인가를 판단케 해준다. 한편 경상현금수지의 적자는 고정자산 구성의 변동이나 금융자산의 변동(예, 부채의 순증가)을 의미한다.

현금수지 : 현금수지는 농가의 경상현금수지에서 농가가 당기중에 상환한 장단기부채의 원금액을 除하고 남은 금액이다. 농업부문에 대한 순투자의 여력이나 농가보유자산의 증감은 현금수지 흑자 또는 적자의 정도에 따라 바뀌어지기 때문에 농가의 일정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비교하여 현금수지의 적자정도 또는 당면한 부채의 상환능력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다. 농가의 현금수지적자를 농가보유자산과 비교하여 적자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一次的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표는 농가보유 유통자산이다.⁵

현금수지가 적자인 농가중 적자의 규모가 연도초 유통자산보다 큰 농가(현금수지 < 연도초 유통자산)는 우선 그와같은 적자를 유통자산으로 메꿀 수 있어 부채의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예상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같은 현금수

지적자가 차기년도에도 계속될 경우 그 농가는 유통자산의 처분 나아가서는 고정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불안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한편 현금수지가 적자인 농가중 그 적자규모가 연도초 보유 유통자산보다 큰 농가(현금수지 < 연도초 유통자산)는 단기적으로 볼 때 고정자산의 처분이 없는 한 부채의 누증이 예상되는 농가이다. 이는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유통자산의 축소(이는 차기년도의 영농비 및 가계비의 축소를 의미함)나 고정자산의 매각 없이는 농가의 당년도 현금수지의 균형을 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가부채의 문제가 단기적인 농가내부의 경상부문의 자금운영상의 문제인가 아니면 과거로부터 누적된 부채의 문제인가를 파악키 위해서는 농가의 현금수지와 정태재무지표에 의하여 판단된 부채의 단기지급능력⁶을 結合하여 分析함으로써 가능하다. 농가의 단기지급능력과 현금수지의 적자 유무에 따른 농가의 유형구분 <그림 3>과 각 유형별 농가의 재무구조상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農家の 現金收支와 短期支給能力 區分

구 분	단기 지급 능력			
	양 호	불 안정	위 험	
현금수지	흑자	제 1형농가	제 2형농가	제 3형농가
	적자	제 4형농가	제 5형농가	제 6형농가

第 1型 및 2型農家 : 현금수지가 흑지이면서 단기지급능력도 양호하거나 불안정 상태인 농가들이다. 이들은 안정된 재무구조와 현금수지 흑자로 앞으로 영농규모의 확대등과 같은 투자확대 가능성이 가장 큰 농가들이다.

⁵ 여기서 유동성이 높은 유통자산(재고 농산물 및 투입재)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농가에서 연도초 보유 유통자산은 당년도의 경영비 및 가계비의 원천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⁶ 농가의 부채에 대한 단기 지급능력은 농가가 당면한 부채에 대한 상환능력을 말하며 여기에는 유동비율, 당좌비율 또는 그와같은 지표의 결합지표 등이 이용되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서중혁의(1985, 1986)의 논문을 참고 하키 바람.

第3型農家 : 현금수지는 흑자이나 단기지급능력이 위험수준에 있는 농가들이다. 이들 그룹은 財務構造上 문제는 있으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현금수지를 양호하게 이끌어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경기변동에 따라 農業與件이 조금만 불리해지더라도 불안정한 재무구조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될 취약성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기도 하다.

第4型農家 : 현금수지는 적자이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한 농가들이다. 따라서 현금운용상에 문제가 있는 농가들로서 當期에 있어서 영농의 실패 또는 家計支出의 과다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누적부채의 상환으로 재무구조를 전전화시킨 농가들이라 하겠다.

條5型農家 : 현금수지가 적자이면서 동시에 단기지급능력이 불안정한 농가이다. 이들은 당장은 재무구조가 크게 위험하지 않다 하더라도 현금수지 악화로 부채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현금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條6型農家 : 현금수지가 적자이면서 단기지급능력도 위험한 농가들이다. 이들은 단기지급능력이 위험수준에 있으며 현금수지가 적자이기 때문에 재무구조상 매우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농가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앞으로 획기적인 조치가 없는 한 부채누증이 계속되거나 농지등의 고정자산처분으로 영농규모의 축소 또는 포기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Ⅲ. 農家の 現金收支와 負債의 短期支給能力

1. 資料 및 分析方法

가. 資 料

本研究의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농수산부의 「1984년도 농가경제조사」 標本農家中 충남지역에 위치한 241호의 기초자료와 원래 조사하지 않고 있는 長短期負債의 내용과 元利金償還 등에 대해서는 보완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보완조사는 1985.9.25~10.5 사이에 충청남도 각군 농수산통계출장소의 농가경제 담당 직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보완조사의 주요내용은 1984.1.1~85.6.30 사이에 농가에서 이루어졌던 장단기부채의 차입 및 상환과 연도초 및 연도말 시점에서의 부채액 및 금융에 대한 농민반응에 대한 것이었다.

나. 分析方法

농가의 動態的인 분석을 기초로한 부채의 상환능력의 판단지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농가의 現金經常剩餘를 계산하고 여기에 서 年度中の 實負債償還額을 差減한 現金領支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현금수지의 적자규모와 농가의 연도초 보유 流通資産의 규모를 비교하여 현금수지의 적자 정도를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현금수지상 적자인 농가를 적자Ⅰ형(현금수지적자액 ≤ 연초 유통자산액)과 적자Ⅱ형(현금수지적자액 > 연초 유통자산액)으로 大別하였다.

즉 현금수지상 적자를 보았지만 농가가 보유한 유동자산만으로도 이 적자규모를 충당할 수 있어 심한 자금압박을 상대적으로 덜 느꼈을 농가와 유동자산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어 이외의 자산 매각이나 신규차입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농가로 구분한 것이다.

위와같이 區分된 농가들의 자금운용(조달과 운영)상의 차이를 분석하여, 현금수지의 적자요인과 적자에 따른 고정 및 금융자산의 운용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농가의 현금운용표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농가부채의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도된 또 하나의 방법은 農家經濟의 動態的인 財務指標과 靜態的인 財務指標을 동시에 이용한 것이다. 즉 농가를 現金收支의 赤字有無와 经营状态에 의해 분석된 부채에 대한 短期支給能力의 정도(양호, 불안정, 위험)를 서로 결합하여 6개 類型으로 구분하였다.

정태재무지표에 의한 단기지급능력의 판단기준은 당좌비율(당좌자산/유동부채)이 100% 이상이고 유동비율{(유동+유동자산)/유동부채}도 100% 이상인 농가는 양호한 농가로(“양호”농가), 유동비율이 200% 이상이나 당좌비율이 100% 미만인 농가는 불안정한 농가로(“불안정”농가), 그리고 유동비율이 200% 이하로서 당좌비율이 100% 이하인 농가는 단기지급능력이 위험 농가(“위험”농가)로 구분하였다.⁷

2. 分析 結果

가. 농가의 현금수지

⁷ 정태재무지표에 의한 단기지급능력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서종혁의(1986)발표 논문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구체적인 것을 생략.

농가의 현금수지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농가 중 현금수지가 적자인 농가는 전체의 49.4%로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表 1). 이는 현재 상당수의 농가들이 1년 동안의 생산활동 결과로 얻어진 농가의 현금소득이 가계부문 및 부채의 원리금상환을 위한 현금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많은 농민들이 “1년농사를 지어 봐야 집에서 먹고 입고 학생들 가르치고 빚갚다 보면 남는 것이 없고 느는 것이라”고 하는 빚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表 1 現金收支別 農家分布
단위:천원, %

구분	현금수지		계
	흑자	적자	
경상* 상수 현지	122(50.6)	22(9.1)	144(59.8)
흑자 적자	0(0)	97(40.3)	97(40.3)
계	122(50.6)	119(49.4)	241(100)

* 경상현금수지 (=현금수지 - 당년도 상환부채 원리금)는 당년도 상환부채원리금을 갖기 이전의 농가경상부문 잉여임.

農家の 現金收支와는 별도로 농가현금경상수지(=현금수지 - 당년도중 상환 부채 원금)를 보면 전체농가의 40.3%가 현금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즉 부채의 원리금 상환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전농가의 약 40% 이상이 현금운영상 적자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 두 지표상의 적자농가비율의 차이인 9.1%는 당년도 부채상환의 원리금때문에 현금운영상 적자를 보게 된 농가들이다.

현금수지가 적자인 농가들을 다시 적자 정도에 따라 구분한 결과는 <表 2>에 나타나 있다. 현금수지가 적자인 농가중 연도초 보유 유동자산

⁸ 이는 현금상환으로만 그렇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재고농산물이나, 대동물 증식액같은 현물부분까지 고려하면 실제 적자농가는 현저히 감소함을 유의해야 한다.

表2 現金收支의 赤字程度에 따른 農家分布

구 분	흑 자	적 자		계
		적자 I형	적자 II형	
농가호수	122	38	81	241
%	50.6	15.8	33.6	100.0

이 현금수지적자보다 크기 때문에 유통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처분하면 그와 같은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농가는 전체의 15.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전체의 33.6%에 해당하는 농가는 연초 유통자산으로 그와같은 적자를 메꿀 수 없는 농가들로서 농가보유 유통자산이나 고정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농가들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현재 농가의 현금수지상태는 우려할 만큼 심각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자금수지의 심각한 불균형은 앞으로 획기적인 농가소득의 증대나 가계소비지출의 축소가 없는 한 부채의 누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나. 現金收支制 農家の 資産運用

현금수지 및 농가의 현금 흐름을 우선적으로 보면 經常部門에서 부터 농가간의 차이가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 <表 3>에서 보면 일차적인 농가의 수입원인 현금 농업조수입은 흑자농가에 비해 적자 I 과 II 농가는 각각 83~85% 수준에 불과하나 오히려 농업경영비는 105%, 148%로 현저히 많다. 즉 농업경영수지에 있어서 적자농가들은 흑자농가에 비해 매우 열등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경향은 農外收支 농외수입과 지출)에서는 더욱 뚜렷해지는데, 농외수입은 農外就業이나 事業 등에 있어서 조건상 차이가 클 수도 있지만, 적자농가의 농외지출이 오히려 큰 것은 차임금이 자비불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과 농외사업(겸업)지출이 컸다는 데 있다. 즉 적자농가들은 농업경영, 농외사업에 있어서 좋지 못한 경영성과를 거두었으며 많은 부채로 利子支拂도 많았다는데 경상수지가 열악한 요인이 되고 있다<表 3>.

뿐만아니라 적자농가들은 所得上의 열위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비도 흑자농가에 비해 현저히 많았는데 그것은 주로 자녀의 교육비, 도시에 나가 있는 자녀 또는 친척에 대한 증여나 관혼상제 등의 비용지출이 컸다는데 원인이 있다.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서중혁 외 1985) 농가내

表3 現金收支 類型別 現金運用

區 分		黑 字 (A)	赤 字 I (B)	赤 字 II (C)	B/A	C/A
調 達	農 業 收 入	3,043(43.2)	2,515(42.8)	2,588(35.0)	82.6	85.0
	農 外 收 入	2,531(35.9)	1,905(32.4)	1,520(20.6)	75.3	60.1
	固 定 資 產 賣 却	869(12.3)	963(16.4)	2,679(36.3)	110.8	308.3
	負 債 純 增	595(8.4)	489(8.3)	600(8.1)	82.2	100.8
	調 整 項 目	6(0.1)	0	2(0.03)	—	—
計		7,044(100.0)	5,872(100.0)	7,389(100.0)	83.4	104.9
運 用	農 業 經 營 費	1,034(14.7)	1,086(18.5)	1,534(20.8)	105.0	148.4
	農 外 支 出	266(3.8)	705(12.0)	482(6.5)	265.0	181.2
	家 計 支 出	2,787(39.6)	2,944(50.1)	3,393(45.9)	105.6	121.7
	固 定 資 產 購 入	2,270(32.2)	996(17.0)	1,509(20.4)	43.9	66.5
	金 融 資 產 純 增	687(9.8)	141(2.4)	471(6.4)	20.5	68.6
計		7,044(100.0)	5,872(100.0)	7,389(100.0)	83.4	104.9

單位: 千圓, %

表4 現金收支 類型別 綜合計定

單位: 千圓, %

區 分	調 達			運 用		計
	經常剩餘	負債純增	調整項目	投 資	金融資産純增	
黑 字	1,487(71.2)	595(28.5)	-6(0.3)	1,401(67.1)	687(32.9)	2,088(100.0)
赤 字 I	△315(△181.0)	489(281.0)	0	33(19.0)	141(81.0)	174(100.0)
赤 字 II	△1,301(△186.1)	600(185.8)	2(0.3)	△1,170(△167.4)	471(67.4)	△699(100.0)

부의 직접적인 소비와 관련된 제비용(음식물비, 주거, 광열, 피복, 보건의료, 교통통신 등)들은 대부분 농가간에 비슷한 수준임에도 이외의 교육비, 교제 및 증여, 미용 및 기타비용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말해준다.

농업이나 겸업의 경영성고가 부진함에도 소비지출은 더 큰 현금수지의 적자농가는 결국 현금경상수지에서 큰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어 이를 충당하려고 상당한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새로운 부채를 차입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表 4>는 농가의 현금 흐름을 각 부문의 純剩餘 개념으로 본 것인데, 흑자농가는 경상부문에서 1,487천원의 현금잉여를 남기고 새로 595천원의 자금을 차입하여 이중 67%인 1,401천원을 고정자산의 구입(순투자=고정자산구입-고정자산매각)에 투입하였으며 나머지는 금융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데⁹ 반하여 적자정도가 심한 적자농가의 경우는 경상부문(소득과 소비)에서 1,301천원의 적자를 보자, 1,170천원의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새로운 부채를 600천원을 더지게 되었다. 그러나 적자정도가 심하지 않은 적자 I의 경우는 고정자산의 순매각은 나타나지 않으며 신규자금 차입으로 경상부문의 적자를 메꾸고 있다.

⁹ 단순히 생각하면 부채를 차입하여 금융자산을 증가시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은 농가에 따라 현금 잉여를 그대로 금융자산 형태로 가지고 있는 농가와 현금잉여+신규 차입금을 고정자산 구입에 사용한 농가 들을 산술평균한데서 나타난 현상임.

그러던 현금수지 상태에 따른 농가의 고정자산 투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흑자농가는 고정자산의 매각수입은 대부분이 대동물을 판매한 수입이나, 적자정도가 심한 농가일수록 토지매각수입이 현저히 증가함을 볼 수 있다<表 5>. 반대로 고정자산의 구입을 보면 흑자농가의 토지자산 구입이 적자농가에 비해 월등하다. 따라서 구입에서 매각을 차감한 純投資의 개념으로 보면 흑자농가는 모든 고정자산 부문에서 상당한 투자증가가 나타나고 있지만 적자농가의 경우는 토지와 대동물은 현저한 마이너스 투자, 즉 순수한 재산의 매각처분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건물과 대농구는 순투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즉 농업의 상업화와 기계화를 통한 영농의 성격전환이 영농규모의 축소속에서도 진전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최근 소값 파동과 관련하여 볼 때 흑자농가의 경우 대동물에 순투자를 보인 것은 이부분에 투자할 기회는 오히려 현재와 같은 낮은 가격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여유자금 보유 농가가 많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농가의 現金收支 程度에 따른 농가를 영농유형이나, 토지소유관계, 농의소득의존도 등에 따라서 어떠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徐鍾赫外 1985)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영농형태별로 보면 食糧作物型과 원예 및 과수형은 흑자형 농가의 비중이 축산형이나 혼합

表5 現金收支別 農家の 固定資産 賣却과 購入

單位: 千원, %

구 분	흑 자 (A)	적 자 I(B)	적 자 II(C)	B/A	C/A
고정 자산 매각(I)	869(100.0)	963(100.0)	2,679(100.0)	110.8	308.2
토 지	99(11.4)	371(38.5)	1,392(52.0)	374.8	1,406.2
건 물	2(0.2)	53(5.5)	13(0.3)	3,211.2	784.1
대 농 구	22(2.5)	0(0)	5(0.2)	0	22.8
대 동 식물	747(86.0)	539(56.0)	1,269(47.4)	72.2	169.9
고정 자산 구입(II)	2,270(100.0)	996(100.0)	1,509(100.0)	43.9	66.5
토 지	583(25.7)	242(24.3)	238(15.8)	41.6	40.9
건 물	628(27.7)	414(41.6)	471(31.2)	38.6	75.1
대 농 구	178(7.8)	111(11.1)	105(7.0)	62.2	59.0
대 동 식물	881(38.8)	230(23.1)	694(46.0)	26.1	78.8
순 투 자(II-I)	1,401(100.0)	33(100.0)	△1,170(△100.0)	2.4	△83.5
토 지	484(34.6)	△129(△390.9)	△115.4(△98.6)	△26.7	△238.4
건 물	626(44.7)	361(1,094.9)	458(39.1)	57.6	73.2
대 농 구	156(11.1)	111(339.4)	100(8.5)	71.2	64.1
대 동 식물	134(9.6)	△310(<939.4)	△574(△49.1)	△231.3	△428.4

형에 비해 현저히 높았고, 적자정도가 심한 농가의 비중은 낮았다. 또한 農外所得依存度에 따른 專兼業別 農家로 보면 농외소득 의존도가 높아질 수록 흑자형 농가의 비중이 뚜렷이 증가하고 있으며, 적자Ⅱ 농가는 전업농이 겸업농에 비해 17%이상이나 많았다. 토지소유관계로 보면 自作農이나 自小作農의 경우는 서로 비슷한 분포를 보인 반면에 賃借面積이 自家所有面積보다 큰 小自作·純小自農의 경우는 흑자농과 적자Ⅱ 농가가 거의 2분되어 나타났으며, 후자의 경우 적자 정도가 심한 농가의 비중이 15~17% 이상이나 높았다. 그러나 경지규모별로는 뚜렷한 차이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현금수지상 자금부족으로 압박을 받는 농가는 畜産農, 專業農, 小作農 그룹이라 할 수 있는데 畜産部門은 경종부문을 대신한 새로운 農業資投分野였다는 점에서, 專業農은 농업만으로는 농가경제가 성장하기 어렵다는 限界論的 認識이 팽배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리고 계속 확대되고 있는 農地의 賃借化라는 시각에서 小自作·純小作農가들의 현금수지상태를 볼 때 현실적인 농업문제

의 일단들이 表出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農家の 現金收支와 負債의 短期支給能力

농가가 當期에 상환해야 할 부채의 상환능력을 綜合的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現金收支程度와 短期支給能力指標를 결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第1型 및 2型農家(현금수지 흑자, 단기지급능력 양호 또는 불안정): 이 유형은 전체 표본 농가의 37%를 차지하고 있다(표 6). 이 농가들은 현금수지가 흑자여서 자금운영에 별문제가 없었으며 부채의 단기지급능력상으로 보아도 큰 문제가 없는 농가들이다. 즉 농가의 財務構造가 안정되어 앞으로 농업부문에 새로운 투자기회가 있을 때 영농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농가들이다.

第3型農家(현금수지 흑자, 단기지급능력위협): 표본농가의 1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당기의 현금수지는 흑자였지만 부채의 상환능력이 위험수준에 있어 경기변동에 따른 농업생산여건이 불리해질 경우 그들이 필요로 하는 현금

表6 農家の 現金收支와 短期支給能力
단위 : 호, %

구 분	단기 지급 능력			계
	양 호	불 안 정	위 험	
현금수지	흑자 제 1형 64(26.6)	제 2형 25(10.4)	제 3형 33(13.7)	122(50.6)
	적자 제 4형 41(17.0)	제 5형 36(14.9)	제 6형 42(17.5)	119(49.4)
계	105(43.6)	61(25.3)	75(31.1)	241(100.0)

조달이 어려워짐으로써 당면부채의 상황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고정자산의 처분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농가들이다. 반면에 農業與件이 계속 호전되면 부채의 상황은 큰 어려움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第 4 型農家(현금수지 적자, 단기지급능력양호) : 표본농가의 17.0%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 농가의 문제점은 부채상황의 문제 보다는 현금수지가 적자라는데 있다. 따라서 이 농가들은 현금수지의 개선을 위한 소득증대와 가계소비의 절약이 필요한 그룹이다.

第 5 型農家(현금수지 적자, 단기지급능력불안정) : 전체의 14.9%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의 문제점은 현금수지의 적자와 당면 부채상황이 매우 불안한 위치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은 현금수지 부문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한 부채상황 때문에 현금수지가 더욱 악화되어 궁극적으로는 부채상황을 원활히 할 수 없게되어 고정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높다.

第 6 型農家(현금수지 적자, 단기지급능력 위험) : 전체의 17.5%가 이 유형에 해당된다. 이들은 현금수지가 적자였고 부채의 단기지급능력도 가장 열악하다. 따라서 소득증대 또는 財務構造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농가들이라 할 수 있다. 즉 농가부채문제의 개선을 위한 일차적인

政策對象 그룹이 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당면부채의 상환연기 같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농가들은 현재와 같은 재무구조의 취약성이나 現金收支의 적자가 지속될 경우 부채의 누증으로 궁극적으로는 농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당년의 현금운용도 양호했으며 재무구조도 안정화되어 앞으로도 부채상황에 별문제없이 농가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농가가 37.0%(제 1 및 2형), 현금운용은 잘하였지만 앞으로 재무구조의 개선에 주력해야 할 농가들은 13.7%(제 3형), 안정된 재무구조를 최대한 활용하여 현금운을 개선해야 할 농가들은 17.0%(제 4형), 현금운용 결과가 나빴으며 재무구조도 불안정하여 단기적인 부채상황에도 문제가 될수 있는 농가들은 32.4%(제5,6형)였으며, 특히 이 가운데서 17.5%의 농가들은 불안정한 재무구조 때문에 次期의 현금운용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그결과 부채의 누증이나 자산매각 등의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제 6형)은 農家負債問題의 개선을 위한 일차적인 정책대상 그룹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V. 要約 및 結論

그동안 農家經濟는 평균적으로만 보면 꾸준히 성장해왔다. 매년 소득이 증가하고 이중 소비하고 남는 경상잉여도 상당히 발생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채의 누증속도 또한 매우 급격한 것이어서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모호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每年 農家經濟剩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부채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농가내부 저축재원 이상으로 투자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었으며, 그러한 시각에서 볼 때 부채문제는 전체적인 農業의 性格變化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농가의 소비적 지출로 인한 부채누증 보다는 생산적 투자로 인한 부채누증이란 점에서, 또한 이미 소모되어버린 자금이 아니라 농가의 자산형태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부채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평균농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과, 농가의 資金借入動機에 관한 조사에서 소비적 지출을 위한 부채의 절대적 규모도 늘고 있다는 사실(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했지만), 더구나 차입금 상황을 위한 부채증가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미 農家들간에는 부채의 누증요인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농가경제의 잉여가 재고농산물의 증감이나 대동식물의 가치평가상의 증식액이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엄밀한 고려가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다.

本 分析은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하에 농가경제의 자금흐름과 자산운용, 특히 부채의 증감을 연결시켜 해석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이때에 現物과 現金을 합한 總計概念으로 보지 않고 현금만을 따로 떼어내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인 평균농가의 분석이 갖는 偏差를 해소하고자 농가를 여러 가지 類型으로 나누어 봄으로써 농가경제의 현실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분석의 주된 관심은 농가가 경제활동에서 얻는 수입(현금)은 과연 어느 정도나 농가내부에 留保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현금경상수지(소득-소비)만이 아니라 부채의

실제상한액까지를 고려할 때 어떠한가를 보고자 하는 데 있었다.

분석의 결과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농가는 부채상황을 무리없이 해가면서도 농가내부에 들어온 수입을 留保시킬 수 있었으며 그 나머지는 나가는 자금이 더 많았다. 또한 표본중 1/3의 농가는 빠져나가는 자금이 年度初에 보유하고 있던 유동자산 보다도 커서 불가피하게 그외의 자산 매각이나 신규차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수지상 적자를 보고 있는 농가 가운데는 9.1%가 경상부문에서는 흑자를 보았으나 차입금 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 적자가 된 농가였다. 그리고 현금수지가 적자인 농가들은 흑자농가에 비해 농업경영 또는 겸업에 있어 경영성과가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이 오히려 컸던데서 적자가 크게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고정자산의 처분도 다른 농가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다.

한편 농가의 자금수지의 불균형은 농가의 영농유형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영농형태별로 볼 때 축산내지는 혼합형농가가 식량작목형과 원예및 과수형농가 보다 자금수지상 심한 적자를 보이고 있다. 專兼別로는 專業農가가 兼業農가들 보다 현금수지의 적자를 보는 농가의 比率이 높았으며, 土地所有關係에 있어서는 小作農이 自作農에 比하여 現金收支上 赤字를 보는 農家の 比重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지규모별로는 뚜렷한 차이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農家の 현금수지와 부채의 단기지급능력을 결합시켜 보았을 때 현금수지와 단기지급능력이 별문제가 없어 새로운 농업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농가는 전체의 37%, 현금수지는 흑자이나 단기지급능력이 매우 위협하여, 농업의 생산여

건이 불리할 경우 당면 부채의 상황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농가가 전체의 13.7%를 點하였다. 또한 부채의 상황에는 別問題가 없으나 현금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는 농가는 전체의 17.0%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금수지가 적자이면서 당면한 부채의 상황이 위험 내지는 불안한 농가가 전체의 32.4%를 점하고 있으며 이중 특히 정부의 획기적인 조치가 없는한 부채의 상황이 사실상 불가능한 농가는 전체의 17.4% 정도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상당수의 농가가 벌어들인 현금수입으로 현금지출을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자금압박감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농가가 받는 이러한 자금압박은 결국 항상 손해보는 농사라는 인식을 불리일으킬 수 있으며, 또 실질적으로도 이의 해소를 위한 자금차입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농가의 그룹은 정태적으로 보나 동태적으로 보나 1/3에 가깝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보다 심각한 그룹이 농업만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專業農, 畜産農 또는 남의 토지를 빌려서 영농하는 小自作·純小作農이라는 사실은 負債問題의 複合性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현금수지상의 적자가 가구원의 일상적인 消費水準 보다는 교육비, 교재 및 증여 등과 같은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政策的 意味는 다음과 같이 풀이할수 있다. 농가경제의 현금수지나 부채문제가 어떤 한 要因의 影響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고만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미 표출된 농업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이루어져야 한다 점이

다. 쌀의 자금과 함께 농업부문의 새로운 投資 擴大 분야가 상당히 축소됨으로써 이미 부문별 과잉생산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실의 農家經濟를 볼 때 농업만으로는 계속적인 농가경제의 성장이 어렵다는 인식만으로 안주해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長期的인 政策方向이 선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희생을 최소화하는 단기보완 정책의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특히 전체농가의 1/3이 현금수지의 적자와 함께 부채의 단기지급능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현재 당면하고 있는 부채의 중장기체로의 전환이나 利子支拂의 연기 등과 같은 적극적인 금융정책이 시급히 고려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農家의 消費生活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교육이라는 문제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평가해야 한다. 교육열이라는 문제는 農家만의 문제가 아니라 全社會的인 것이며 오히려 農家의 입장이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 均等한 教育機會를 농가도 누릴 수 있는 여건조성과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參 考 文 獻

- 金榮喆, "農家의 借入金償還에 대한 理論的 考察," 「농협조사월보」, 농협중앙회, 1978. 12.
 金顯俊, "우리나라 農家의 消費構造," 「농협조사월보」 농협중앙회, 1983. 9.
 蘇眞德, 「會計學原論」, 博英社, 1971.
 이우재, "농가부채의 실태와 그 문제점," 「한국농업문제의 새로운 인식」, 돌베개, 1984.
 李貞煥, 「農業金融의 再編成 方向」,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
 徐鍾赫, 朴成在, 「農家資産 및 借入構造의 變化에 관한 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5.
 _____, "農家財務構造와 負債償還能力 分析," 「農村

- 經濟」, 第9卷第1號,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6.
- 3.
- 鄭鎰玉, “우리나라 農家의 資金借入 및 償還構造分析,”
「농협조사월보」, 농협중앙회. 1983. 7.
- 農協中央會, 「韓國의 農業金融」, 1984.
- 한국기독교농민회, “농가부채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소방안,” 「農村現實과 農民運動」, 民衆社. 1984.
- 韓國銀行, 「기업경영분석」, 1984.
- USDA, *The Current Financial Condition of Farmers and Farm Lenders*, 1985.
- ,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U.S. Farms*, January 1, 1986, August, 1986.
- , *Farm Sector Financial Problems: Another Perspective*, May 1986.